사목협의회 회의록

|  |  |
| --- | --- |
| **회의날짜** |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10:30 (영상채팅) |
| **시작기도** | 5월 사목지표 |
| **회장님 말씀** |
| \*생활규제완화 2단계로 접어들어 각 위원회별로 협조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원활히 본당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과 의견들을 나누길 바란다. |
| **사제단 회의 및 직원회의 내용을 참고한 후 의견 나눔** |
| **1.사제단 회의내용 요약(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)**-현재 레지오 회합을 하루에 한팀씩 진행하고 있으며, 모니터링을 수녀님과 신부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.-토요일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 봉사자들의 모임을 성당에서 갖고 있다.-시티청년(Ad Deum)들이 미사 봉사 참석을 원함 : 아미쿠스 청년들과 상의 후 조율 할 예정-성전 앞 나무 조경 필요 : 나무에 새가 너무 많이 모여 미사때 소음이 생겨 가지치기가 필요 **2.직원 회의 내용 요약(김경수 바오로 신부님)**-신자 중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교무금을 내며 활동하는 분들 교적 print, 확인하고 있다-개인기도,고백성사 개방 : 신자들의 방문시간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시간변경 예정-레지오 회합시 : 주소록 작성, 마스크 착용(불편함이 있지만 규제에 맞춰 시행하고 있음)-미사예물 신청과 관련 : 주보에 전례위원회 위원장 연락처 공지 요망-교무금,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음-HP 프린터(검은색) :6개월 비용 지불 안함에 라서 계약 기간이 6개월 연장됨 |
| **각 위원회별 지난주 소식 및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 및 토의한 내용에 대한 나눔** |
| **<본당운영위원회>** \*대교구 지침이나 회의내용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성당내 안내 표기를 시행할 예정 **<전례위원회>** \*현재까지 매일미사에 10명의 신자 참여와 모니터링 봉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, 인원이 늘어 위원장님들과 함께 2단계 개방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. :평일미사는 50명내외로 참례하기 때문에 따로 접수가 필요 없을 듯,모니터링 봉사는 기존대로 :주일미사는 50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야 하며,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도 접수를 받아서 담당자를 정해 프린트 후 미사전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듯 하다. :70세이상인 분들에게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안내가 필요(은빛대학에 협조요청)**<위원장님들 의견>**→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좋은 것 같다. 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로 접수를 함께 받으면 좋을 듯하지만 한 사람이 맡아 하기엔 일이 많을 듯→장기적으로 보면 개인별 바코드 시스템을 도용하여 스캔을 하면 빠른시간에 체크 가능할 듯→성당 도서부에서 사용하는 바코드(도서회원증) 방법을 채택 : 현재 700-800명이 사용중이나 바코드 인식 컴퓨터가 오래되서 프로그램이 고장난 상태.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.→현지성당에서는 개인이 레지스터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채택하면 좋을 듯 하다.→모니터링시 참석자 확인할 때 교무금 번호만 기입하면 모든 디테일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.→평일미사는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, 주일미사가 오전, 오후로 늘어나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니 발열체크 기계구입이 필요할 듯 : 기존 발열기계가 느리다.**<의견수렴 후>**  :평일미사는 기존대로 오전에 9시 30분미사로 진행할 예정이며, 모니터링 봉사는 사목위원회에서 하되 미사참례 신자들의 이름,전화번호(교무금 번호)만 기입하고 발열체크 :주일미사는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전 10:30미사와 오후 5시 미사로 진행을 함 (발열체크 기계는 부족하면 더 구입하도록 함) :70세이상의 신자들에 대해선 대교구 지침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:봉사자들간 사회적 거리 유지:미사시 선송자만 성가를 부르는 건 당분간 지속함. :예물봉헌시 봉헌을 하지 않는 신자들도 거리유지하기 위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날 수 있다. :성당에선 반드시 마스크 착용, 개인컵 사용 :개인기도, 고해성사는 신자들이 참석가능한 시간으로 변경(수요일 9-11am시, 주일 4-6pm) :현 상황에서 매년하던 성령뽑기가 없으나, 평화방송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령뽑기를 활용하여 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**<신앙 복음화 위원회>** \*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, 다음 회의때 보고 하겠음.**<구역공동체 위원회>** \*생활보조금(현금지원)과 관련하여 구역에서 5명(신자 3명, 비신자2명) 접수 완료\*각구역에서 미사에 참례를 원하는 인원에 대한 접수의 어려움과 독서 봉사자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다. 이 부분에 대해 각 위원장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함.**<사회사목위원회>** **\*생활보조금(현금지원) 진행과 관련** : 외부 3명, 구역 5명 접수 진행되었음:성당 미사나 활동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구역 네트워크를 통해 찾는데는 한계가 있음. :기존 계획대로 6월 10일부터 현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인원 10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,,,,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인원을 채우지않고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더 기다려야 할지 의견을 주길 바란다.**<위원장님들 의견>**→일단 접수된 분들부터 시행하면 좋을 거 같다.→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당이나 주일미사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찾기는 어려울 듯 하다. 따라서 시간을 두고 차츰 찾아보고 일단 접수된 분들부터 심사를 거쳐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.→나머지 인원은 오픈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.**<의견수렴 후>** **:**각 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니,,,,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겠다. 또한 나머지 인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.**<신심 봉사 단체위원회>** \*현재 레지오 5팀은 온라인으로 회합을 진행하고 있고, 6팀은 성당에서 하루 한팀씩 회합을 함. :규제완화 2단계 진행에 따라 회합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.\*성모회도 지난주(월) 수녀님과 함께 회합을 실시하였으며, 6월 1일부터 한달간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성당의 모든 신자들의 안전에 대해 지향을 두고 ‘마르코 복음서 통독’을 실시 할 예정\*신심봉사단체 위원회 단체별 예산안을 받고 있으며, 일단 준비가 끝난 성모회만 먼저 제출 예정 **<미디어 선교 위원회>** \*미사예물 신청서를 홈페이지나 앱 파일에서 할 수 있도록 함.**<본당사무실-사무장>** \*성전 앞 나무 : 가지치기에 대해 구두로 가격을 알아보았으며, 메일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예정 |
| **원장수녀님 말씀** |
| \*각 위원회에서 모두 고생하고 있으며, 늘 기도로 함께 하겠음. |
| **주임신부님 말씀** |
| \*사목협의회 Zoom미팅은 오늘이 마지막으며, 6월부터 사목협의회 회의를 한달에 한번 성당에서 진행할 예정\*사목협의회 회장단 회의(매주 토요일 점심시간 이후에 성당에서 진행할 예정):회장,총무(남,녀),본당운영위원장,전례위원위원장,사회사목위원장,구역공동체위원장을 중심으로 참석 (신심봉사단체위원장, 신앙복음화위원장님들은 특별사항이 있을 경우 참석)\*성령강림대축일을 맞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라며, 성경말씀 중 “Receive the Holy Spirit(성령을 받아라!)”를 기억하며 한주를 보내자. |
| **회장님 마무리 말씀** |
| \*각 위원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, 3주후 직접 얼굴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, 좋은 주말 되길 바란다. |
| **다음회의** | 2020년 6월 21 일(토) 10:30 (영상채팅) |
| **마침기도 및 강복** |